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여성 - 되기' 사례 연구

노인 미디어 학습동아리 〈은빛둥지〉 활동을 중심으로

장유정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후기구조주의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소수성과 소수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는 이미 소수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자 특이성을 지닌 소수자들의 '되기'를 제시하고 있다. '되기'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동일성에서 분열하여 다른 삶, 다른 주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이다. 연구 목적은 '여성 - 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을 탐색하여 노인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요 개념과 사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유를 전제하는 이유는 기존의 양적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소수자와 소수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소수자로서 노인여성들의 욕망을 '되기'라는 생성의 차원으로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소수자, 되기, 노인 미디어 교육, 노인 여성

* jeong0510@hanmail.net 제 1저자

** jskang1@cau.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레디~액션!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러한 모토 아래 지난 2013년 제1회 NILE단편영화제 시상식이 충북 제천에서 개최되었다. 이 영화제는 지금까지 총 2회 개최된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주요 행사의 일환으로서 대한민국평생학습진흥원이 주최해 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산의 75세 여성 감독 윤아병 씨가 수많은 젊은 경쟁자를 제치고 자유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노인들의 영상 미디어 제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흐름에는 노인 계층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목도된다.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며, 실제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UN의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서 규정되는데, 한국은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는 2~3년 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박민욱, 2014). 따라서 고령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혜안이 요구된다.

사회 구성원의 빠른 고령화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을 수반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늦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환경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노인의 고독감, 빈곤, 질병, 가족과의 갈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노인 인구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여성은 남성 노인에 비하여 가정적·사회적으로 줄어든 지위와 역할로 인해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다. 노인여성이 고령이 되어 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은 노인여성의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사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정엽, 2010).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일환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디어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분야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노년층이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비롯한 행복감을 느끼고, 해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받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경기도 안산의 영상 미디어 동아리 ‘아름다운 젊은 실버들의 집’ 은빛둥지 회원들은 ‘세월이 가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보다 역동적인 삶의 일환으로 노인 영상 미디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아존중감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높이고 있다. 그 동안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IT 활용, 영상 제작 등의 영역이 장비와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노인 계층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영상 미디어활동이 노인의 새로운 참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박민욱, 2014).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eing)'¹⁾을 대표하는 윤아병 감독은 은빛동지에서 컴퓨터를 시작해서 3년 만에 국가자격증을 획득했고, 14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영화제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또 최근에는 KBS 강연100도씨에 <76세 할머니 영화감독 윤아병. '재밌잖아요'> 라는 강연 주제로 미디어 동아리를 통한 미디어 교육으로 시작된 감독으로서의 오늘날까지를 담담하게 소개하며, 공영방송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마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며 많은 박수를 이끌어 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평생학습의 일환인 미디어 교육의 바람직한 예로 그저 평범한 주부로 일생을 마칠 운명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다른 노인들의 '생사적인 변화'에 바람을 넣고 있다. 이에 관해, 후기구조주의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는 소수성(minority)과 소수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는 이미 소수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계층이 억압된 현실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되기(becoming)'를 제시하고 있다. '되기'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동일성에서 분열하여 다른 삶, 다른 주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이다. 즉, 스스로 변화하고 그 삶 속에 주체적으로 들어가는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 되기(becoming)'를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을 탐색하여 노인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로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요 개념과 사유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유를 전제하는 이유는 기존의 양적 기준으로 정의되었던 소수자와 소수성(강진숙, 2010)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소수자로서 노인여성들의 '욕망'을 '되기'라는 생성의 차원으로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컴퓨터·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T의 은퇴자 재능 나눔 프로그램, 노인 뉴스 전문 기자단의 실버넷뉴스 등이 있다. 한편 노인학·노인의학 국제 연맹(IAG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은 디지털 에이징을 노인 의료와 활동적인 노화의 새 지평으로 삼은 바 있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4. 3. 4).

2. 이론적 논의

1) 다수성과 욕망하는 소수성

들뢰즈와 가타리는 ‘모든 되기는 소수자다’라는 명제를 통해 남성, 규범 등의 다수성(majority)을 주체 개념으로 보는 경직된 사고를 거부하고 규범적 틀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소수자들의 저항적 움직임에 주목한다(이경화, 2013). 이들은 ‘소수자’와 ‘다수자’라는 용어를 수(數)적인 측면이 아닌 구성의 양태적인 측면에서 주체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집단의 구성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주체들의 특질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이 소수자에 포함되는 것은 그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표준 척도인 ‘남성’과 다른 차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수성은 하나의 고정된 표준을 지닌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은 정초하는 표준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은 각각 새로운 구성원에 의해 변화한다(Colebrook, 2002).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하고 있는 소수자 개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지했듯이 소수자와 다수자는 단지 양적인 대립이 아니며 다수성은 보편적인 사회적 평가의 척도로서 작동하는 권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자는 다수의 표준 척도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Deleuze & Guattari, 1980/1996). 소수자의 주체성은 다양한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연관된다. 사회경제적인 분류인 계급과 대비하여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출신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한 구분은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백인-남성 - 어른 - 이성애자 - 본토박이 - 건강인 - 지성인 - 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으로 표상되는 다수자적 인간상과 유색인 - 여성 - 어린이 - 동성애자 - 이주민 - 환자 - 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으로 표상되는 소수자적 인간상은 정체성 대비의 대표적인 예다(윤수중, 2008). 이러한 구분의 척도들은 동일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을 간과하게 한다. 즉, 차이의 생성은 다수자의 범주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이의 생성은 소수자 되기를 통해 가능하며 고정된 사회의 지배관념과 권력의 질서를 성찰하게 하는 역동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지배’와 ‘권력’의 작동 원리와 달리 차이의 생성은 개인과 집단의 주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는 ‘되기’의 과정은 새로운 상상력과 행동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복수의 서로 다른 ‘되기’의 과정을 행하는 주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강진숙, 2010).

이렇듯, ‘다수자적인(majoritarian)’ 주장은 집단화의 근거이자 합리성으로서의 표준화되고 지각된 단위에 호소하게 되지만, ‘소수자적인(minoritarian)’ 주장은 그것의 집단화

혹은 배치의 사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동일성이 될 것이다(Colebrook, 2002).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이미 주어진 어떤 재인(再認, recognition)이나 성공의 표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데, 〈분자혁명〉에서 가타리가 제시한 몰(mole)적 - 분자적(moleculaire)이라는 개념 쌍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몰적' 질서는 대상, 주체, 자신의 표상, 자신의 준거 체계를 한정짓는 지층화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 가거나 모아 가는 것으로 모든 움직임을 이윤 메커니즘에 맞추어 코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분자적'이라는 의미는 미세한 흐름을 통해 다른 것으로 되는 움직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미세한 흐름은 사회 전반적인 분자적 움직임도 가능한 것이다(Guattari, 1977/1998). 이 두 개념 쌍을 통해 '욕망'의 흐름에 관한 파악이 가능하다.

욕망의 흐름은 내재적으로 차이의 생성을 지향한다. 욕망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물과 같은 흐름의 결을 지니기 때문이다(Colebrook, 2002). 하나의 흐름은 다른 흐름의 차이, 혹은 하나의 생성과 또 다른 생성과의 차이는 절단과 접속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고립된 생성이 아닌 이들의 순환을 통한 생성인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에 관한 사유는 항들의 관계로 표상할 수 없고, 주체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흐름을 생산하는 생산 자체다(김명주, 2009). 이는 주체와 제도라는 환경의 통제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뢰즈의 욕망의 문제는 욕망을 결핍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생성 혹은 생산으로서의 '욕망'인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변화의 동기를 '할 수 있는' '욕망'에서 찾는다. 그들이 제기하는 욕망 개념은 신체적이고, 기계적이며, 분열적인 욕망이다. 욕망은 일차적으로 신체에 작용하여 물질적인 흐름과 절단을 생산하여 신체의 각 기관들을 작동시키는 힘이다. 또한 이러한 신체는 흐름과 생산을 절단하고 접속과 채취를 행하는 수많은 욕망하는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욕망하는 기계는 특정한 모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분열적인 과정을 따르게 된다. 즉, 생산하는 욕망을 의미한다(Guattari, 1977/1998).

욕망을 긍정적인 생산의 힘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기관 없는 신체, 고른 판 위에서 다양체의 분자적 흐름을 간파한 들뢰즈의 생산적 욕망은 여성주의에 대항한 새로운 여성주의를 제안하고 있다(연효숙, 2006). 몰적인 배치를 거부하고 분자적 흐름에 맡겨진 여성주의로 대변될 소수자는 새로운 권력 구도를 생성한다. 즉,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의 경험에 노출된 주체가 바로 소수자이고, 이렇게 분류된 소수자의 문제는 권력 관계와 새로운 주체성, 분자화하는 운동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수자들이 주체가 되어 형성하는 소수자 문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권력 기

재들, 이른바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는 ‘타자’인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실천적 주체들이 소수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틀뢰즈의 소수자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자 문화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을 지닌다. 과거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주체의 지각이나 외부의 호명을 통해 소수자 문화로 나타난다. 여성,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노인 등은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자로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의 실제 경험을 근간으로 적극적인 저항과 해방 의식에 의해 소수자 문화의 주체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이른바 소수자가 그 자신을 규정하던 척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소수자가 상대적 소수자로부터 ‘탈영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수자 운동이 권력혁명이란 전통적인 혁명의 관점보다 성혁명, 분자혁명, 욕망과 혁명이라는 바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욕망’과 ‘혁명’의 관점에서 권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은 뭔가 바꿨다는 환상을 갖고 사회관계를 일시적인 변형으로 이끌 수 있으나 진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계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윤수중, 2008). 따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어떤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소수자 운동은 타자를 파괴하고 대체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신체, 자신의 인식과 일상생활 등의 사회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형해 가는 것이다. 자신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사회의 다수자적인 시선을 교정하고 다수성의 성격에 지닌 제도와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가타리는 사회제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주체성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욕망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되기’다(윤수중, 2007).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되기’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상호 대응하여 동일해지려는 환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차이 그 자체를 생성하는 실천적 과정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 노인여성 미디어 교육을 ‘되기’의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노인 중에서도 노인여성을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 계층으로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사회 인식과 다르게 생산적인 욕망을 생성하는 주체임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소수자 교육이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가 지닌 ‘개성’ 또는 ‘다름’을 실질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윤수중, 2008).

2) 들뢰즈와 가타리 '소수자 - 되기'

'되기'란 실제적 의미가 아닌 동사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대상 또는 존재의 성격을 규정짓는 잠재적인 점들로 이루어지는 계열들이 만나 변주 또는 변신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한 '되기'의 사유를 강조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성의 철학은 다양한 지식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음이다(이경화, 2013).

“되기(=생성)는 결코 관계 상호간의 대응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도, 모방도, 더욱이 동일화도 아니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452쪽). 되기는 지금의 나 아닌 다른 것, 이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내부의 잠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내가 접하지 못했던 낯선 것들로 인한 정체성이 위협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되기'에는 왜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주체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되기는 왜 항을 갖지 않을까? 이 항은 나름대로 그것의 주체이고 공존하며 블록을 이루는 '다르게 되기' 속에서만 포착되기 때문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453쪽). 들뢰즈와 가타리는 모든 종류의 결정론적인 시각을 거부한다. 되기는 혈연이나 계통에 의한 진화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진화로 '되기'에는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없다. 되기는 주체가 대상인 어떤 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즉 생성의 블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되기'의 과정을 여러 절편들 사이에 일종의 순서나 외관상의 진보를 설정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자 - 되기'와 '아이 - 되기'가 있고 '동물 - 되기'와 '식물 - 되기', '광물 - 되기'가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분자 - 되기', '입자 - 되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516쪽). 단계나 속성에 입각해서 '되기'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되기의 절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변형시키며 공생하는 관계인 것이다.

“모든 되기는 여성 - 되기를 통해 시작하며 여성 - 되기를 지나간다. 여성 - 되기는 다른 모든 되기의 열쇠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526쪽).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유하는 '여성 - 되기'에 관한 명제다. 여기서 여성은 개별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보편 여성을 지칭하는 것도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보편성과 일반성으로 축소, 왜곡된 현실, 표상 세계의 모태로서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 되기'는 차이 그 자체를 포착하거나 차이 그 자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의 의미인 것이다(신지영,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 - 되기'는 생성으로 가는 관문이며, 모든 생성은 '여성 - 되기'를 통해 시작됨을 의미한다. 즉, '여성 - 되기'가 단순하게 다른 존재로 바뀌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닌 젠더화된 여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한 분자적 생

성에 의한 남녀의 양성이 아닌 수많은 n개의 성을 만들어 내는 생성운동인 것이다(민진영, 2007).

이처럼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여성은 여성 - 되기,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어야 소수자로서의 변용이 가능하다. 여성의 여성 - 되기에 관해서, 모든 남성의 여성 - 되기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억압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자신이 참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즉, 소수자 되기는 특정 대상에 대한 모방이나 동일시하는 환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차이를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성하는 과정인 것이다(강진숙·배민영, 2010).

요컨대, '소수자 되기'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소수자가 되는 것이고 소수자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여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소수자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되기'라고 할 수 없다(이진경, 2002). '소수자 되기'는 어떤 무엇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수성을 지닌 표준적인 것에 대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Guattari, 1977/1988)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증가하는 노인 인구 중에서 노인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 '노인문제는 곧 노인여성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성노인보다 더욱 많은 수의 노인여성들은 직업이 없고 은퇴 후에 수입이 없어 자손들에게 의존하기 쉽고, 홀로 되었을 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는 절대 수명에서 급격히 늘어나게 될 노인여성의 인구학적 상황은 현대화에 따른 사회학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노인여성들의 삶의 질은 전향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조용하, 2009). 그렇다면 노인여성의 전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여성들의 '소수자 되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한 물음을 출발점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사유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노인여성 - 되기' 그리고 노인 미디어 교육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냥 수치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섭취하고 축적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늙어 가는 것이 아닌, 세월의 두께만큼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을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미디어 라이프를 보다 잘 알아가려면 대충이라도 노인, 늙음,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에 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노인들의 미디어 라이프에 관해 들여다보게 되면, 고정관념에 빠지거나 '노인들이 다 그렇지', '노인들은 왜 그런 식이지' 하는 정도로 겉돌기가 쉽다(홍명신, 2007).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이라는 분류 속에

뒹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살아 온 세월의 무게만큼의 차이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살아 온 환경, 경험, 건강, 능력 등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진다. 이러한 추세가 입증하듯 최근에는 '누가 노인인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령자, 고령층, 실버, 시니어 등의 노인을 지칭하는 표기에서 기준의 모호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표기에서 오는 모호함은 오늘날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초고령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나이 들'은 더 이상 은퇴와 고립이 아닌 '사회의 원로'로서의 활동과 참여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년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년학자 노이가르텐(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로 삶의 만족 척도를 마련했다. 첫째, 현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 범주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과 둘째,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절대적 수용 그리고 셋째, 기대하던 목표와 성취된 목표 사이의 일치를 달성함으로써 삶의 목표를 성취했다는 감정 넷째, 긍정적인 자아상 다섯째, 행복 및 낙관적인 태도와 정서에 대한 유지(조용하, 2009)에 대한 것이다. 이 척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관적으로 안녕한 삶, 즉 정서적 차원에 대한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위해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는 노년기에 잃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생활의 만족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박민욱, 2014). 이는 노인들이 단지 양적인 다수로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적 소외 계층에서 벗어나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지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보해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노인들은 현실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전히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 노인을 위한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고, 노인 관련 미디어 연구도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속고할 것은 노인들의 삶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기 쉬운 노인 계층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신체적 거동이 불편해 다양한 요양 시설을 이용할 때도 정서적인 부분의 완충 작용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동희, 2006). 즉, 노인들의 삶에서도 미디어는 그들의 심심한 일상의 벗임과 동시에 세상과 연결해 주는 창역 역할을 동시해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디지털 에이징화를 가능케 볼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에 재현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으로 반영되고 있다(김영주, 2006). 고령화 사회를 ‘젠더(gender)’의 관점으로 파악할 때, 사회 여러 부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활동이 활발해졌다지만, 여성들의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디어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영란, 2010). 이는 여성노인이 평생 여성, 노인이라는 이중적 소외 계층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독립된 여성이 아닌 희생과 헌신의 탈성화된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또 하나의 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성노인의 삶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영역을 담당할 주체라는 부분뿐 아니라 한 여성의 삶으로서도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다(한동희, 2014).

오늘날의 여성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들뢰즈의 사유에 근거해서 ‘동일성’ 그리고 ‘차이’ 사이의 긴장으로 함축할 수 있다. 즉, 여성주의는 여성 본질주의를 따라 여성에 고유한 주체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여성성을 버리고 성 차이를 제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신지영, 2007). 이는 여성성을 강조하여 여성적 주체를 고집하자니 본질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탈젠더적으로 성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자니 여성주의 자체가 제거되는 위협에 처하게 됨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주저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여성은 대표적인 질적·양적 측면에서 빈곤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성학이나 사회학의 사회적 불평등 연구, 사회복지학의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여성의 문제는 주변인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었다(박명선,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경험하는 노화의 현상을 남성의 경험이라는 틀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에 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 남성 중심 사회에서 부여된 성역할, 여성에게 있는 자원으로서의 관계성의 중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여성의 노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주의적 노년학의 쟁점이다(김여진·박선영, 2013). 이러한 여러 쟁점 중에서도 여성에게 있는 자원으로서의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디어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인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미디어 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동희(2006)는 정보격차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뉴에이징 시대의 다양한 노인미디어 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강진숙(2009)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노인미디어 교육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전문교사의 양성과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 교사 시험제도 또는 공인인증제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어서 강진숙(2010)은 ‘소수자-되기’를 위한 노인미디어 교육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가능한 미디어 교육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교육 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함을 제안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노인 전체

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속에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수명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통계자료²⁾를 감안하고라도 여성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그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노인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노인층의 권리 확대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미디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볼 때, 노인들의 소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초과할 때를 대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회 활동 능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강진숙, 2012).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노인 미디어 교육이 얼마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와 얼마나 실천적인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더불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과 지역 및 전체 사회 속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바람직한 '소수자-되기'로 발현되어야 한다.

4) 노인 미디어 교육 동아리 '은빛등지'

'장수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인을 생산적인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한 손실이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듯, 최근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영상 미디어 활동을 들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IT의 활용, 영상 제작 등의 영역이 장비와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노인 계층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영상 미디어 활동이 노인의 새로운 사회 참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미디어센터는 이미 지난 수년간 노인 계층에게 IT 활용과 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교육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기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과 경험, 생각을 솔직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집단 작업(=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상 제작 활동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최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동아리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순 미디어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서울노인복지회관의 미디어 교육 동아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참여자 중에서 몇몇 노인들은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 영화제에 출전하는 등

2) 한국 노인의 평균수명은 80.1세로 여성은 83.3세, 남성은 76.5세이다(통계청, 2010).

표 1.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의

| 구분 | 정의 |
|----------------|--|
| Auteri(2003) | 순수한 사업에서 시작되어 박애주의적 기업으로 변환된 조직으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는 특별한 형태. |
| Campbell(1998) | 사회적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조직. |
| Pearce(2003) | 사회적 목표가 있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 소유 구조를 가지면서 이윤 배분이 금지된 기업을 지칭함. |
| OECD(1999) | 공익을 위해 조직되어 주된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진 활동. |

출처: 김정진·이성엽(2013), 노인 학습동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한 사례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39쪽.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단순 취미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군의 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교육의 참여는 꾸준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후 활동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동아리들 중 몇몇 동아리들은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경계를 넘어서 영상 미디어 활동을 통한 경제 활동에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는 곳으로 2001년 모임을 시작하여 안산을 주요 활동지로 하고 있는 ‘은빛동지’의 경우, 2009년 ‘은빛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었고 2013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현재 정부의 지원 속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개발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박민욱, 2014).

‘은빛동지’의 수익 구조는 첫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채택료, 둘째, 언론사의 VJ, 리포터, 프리랜서 영상 제작, 셋째, 기업·기관·단체의 홍보 영상 제작 수익금 넷째, 기관과 사회단체의 기록 영상 아카이브 구축, 다섯째, 개인·가족 단위의 행사 영상 제작, 여섯째, 각종 영화제에 출품하여 수상 시 상금으로 이루어진다(김정진·이성엽, 2013).

‘은빛미디어’는 수익금 전액을 노인 IT 활용 교육 및 영상 제작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 경험이 많은 노인 회원이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노인을 가르치는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은빛동지’ 역시 초기에는 다른 노인 영상 제작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모임 정도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미디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노인들 스스로 교육, 운영, 콘텐츠의 유통, 수익 구조의 개발까지 모두 해내고 있어 노인의 자발적 사회 참여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노인 계층의 사회 참여는 고령사회가 야기하는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은빛미디어는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노인 미디어 교육도 함께 수행해 2001년부터 5,000여 명의 IT교육생을 배출했다. 은빛미디어는 국제적 교류도 활발해 지금은 아시아 및 세계IT노인연맹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노인연맹과도 자매 결연을 맺어 활동하고 있다.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은빛등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가치를 올려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2014, 이필성). 이는 노인복지와 교육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적은 국가 재원으로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노인복지자원의 모델 개발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와 미디어 교육을 통한 노인 여성들이 욕망하는 '소수성'이 발현되는 양상,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은 '노인여성 - 되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노인 미디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한다.

연구 문제 1: 연구 참여자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 문제 2: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노인 여성의 '소수성'을 어떻게 발현하는가?

연구 문제 3: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어떻게 '노인여성 - 되기'를 실현하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노인 학습 동아리로 2001년 9월에 컴퓨터 학습 동아리 '은빛등지'로 시작하여 2009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방송국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빛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노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 시·도의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 및 동아리에서 노인

표 2. 은빛동지 교육 프로그램

| 시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1교시 | 포토샵 | | 문화유산 현장 촬영 | 한글과 인터넷 | |
| 2교시 | 점심식사 | | | 점심식사 | |
| 3교시 | 한글 기초반 | | |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 |
| 4교시 | 디렉토(웹 활용/동영상) | | | 고급 한글(자격증반) | |

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단순 배움에 그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은빛동지’는 이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 동아리라는 출발점은 같지만, ‘은빛미디어’라는 개인 영리가 아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낸 그 구성원들의 성장 사례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 그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한 후에도 ‘은빛동지’는 사회적 기업 안에서 존속하면서 2010년 평생학습대상 수상 등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 학습 동아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는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 참여자는 ‘은빛동지’ 학습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평균 연령 61~78세의 노인여성과 동아리 활동에 학생으로 참여했었던 노인 교수자 그리고 은빛미디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연구 참여자 | 성별 | 연령 | 전 직업 | 학습 동아리 참여 기간 | 사회적 기업 참여 기간 |
|--------|----|----|------|--------------|--------------|
| 1 | 남 | 75 | 교육자 | 14년 | 4년 |
| 2 | 여 | 76 | 주부 | 10년 | 4년 |
| 3 | 여 | 63 | 주부 | 5년 | 2년 |
| 4 | 여 | 71 | 주부 | 6년 | 3년 |
| 5 | 여 | 73 | 주부 | 6년 | 3년 |
| 6 | 여 | 73 | 주부 | 7년 | 4년 |

이 연구는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했다. FGI 방법의 적용 근거는 한 공간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류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 간의 인식과 태도를 심도 깊이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설문지 배부 전에 한 분 한 분 개별적 질문을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면서 연구와 관련이 유·무를 떠나 신변잡기적인 대화로 경직된 분위기를 풀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안산시에 소재한 학생들의 참사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에도 인터뷰를 위한 방문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2회 방문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했고, 연구 참여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령의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해 반개방형 설문 형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b 참여자들 대부분 5년 이상의 동아리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을 받은 기간도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의 직원으로 있는 노인들은 같은 동아리에서 학생과 교수자의 역할을 모두 거쳤으며, 현재 교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는 3명이었다. 인터뷰는 2014년 5월 19일, 2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은빛둥지 사무실에서 각각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했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각각의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로 나열 및 배치의 과정을 거쳐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1)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삶에 관한 인식

‘세월이 진짜 빨라’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세월이 빠르네’의 차이는 무엇일까? 얼핏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 변동은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길어진 노후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가 이른바 실버 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야. 사회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노인이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그걸 찾는 게 열쇠지.

난 그 열쇠가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지.” - 〈연구 참여자 1〉

“우린 14년을 노인에게 IT교육을 해 왔어. 한번 생각해 봐. 컴퓨터라는 건 깡통이잖아. 깡통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데 기억력 하난 끝내 주거든? 근데 노인은 평생을 살아 오면서 엄청난 자기 경험이 있어. 그것도 모두 다른 특이한 경험. 그런데 그걸 다 기억을 못하는 거지. 바로 이런 점에서 호환이 되는 거야. 상호보완적이라는 거지.” - 〈연구 참여자 2〉

“이렇게 우린 생각이 통해. 우린 그래서 컴퓨터가 노인들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노인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도 되고 방법도 된다는 거지.” - 〈연구 참여자 1〉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야기된 생산 인구의 감소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 즉 디지털미디어 제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1〉은 스스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투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노인들은 뜻밖에도 디지털 기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층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물러서지 않고 보다 능동적인 미디어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생각과 습관을 중단 혹은 과감하게 버리고, 혼란의 과도기를 거쳐 미뤄 두었던 컴퓨터 다루기를 시작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그저 고철 깡통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그들과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상호보완적 상생의 관계는 물론이고 21세기 노인들에게 주어질 특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 노인들이 14년 전부터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어. 선생님으로 있는 분들이 5명 계시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분들이 국가자격증까지 획득한 거야. 하나같이 어디 컴퓨터학과를 나온 분들이 아니고 평생 컴퓨터하고 사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런 게 왜 가능한지 아는가? 바로 디지털 때문이야.” -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와 〈연구 참여자 3〉은 평생 동안 컴퓨터에 관해 관심도 없었고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운동 후 전단지 홍보물을 보고 미디어 교육 센터에 스스로 찾아온 일이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흥미롭

게 본 홍보물을 통해 찾아간 미디어센터에서 기초부터 시작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른바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된 <연구 참여자2>는 제2의 인생, 새롭게 찾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한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노인들은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표출함과 동시에 운신의 폭을 넓혀 소통하고 있었다. 즉, 초고령 사회의 우리사회 내부적 갈등을 디지털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 스스로의 욕망을 표출하고 재현하는 도구로까지 확장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노인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허물고 세대 간 소통을 삶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더 이상 노인들 스스로가 보호받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인 '소수자 - 되기'의 움직임으로 포착할 수 있다. '되기'가 동일한 것으로 변화하거나 흉내(모방)를 내는 개념이 아닌, 분간할 수 없고 분화되지 않는 영역, 즉 특정한 모습으로 탄생되지 않은 차이 그 자체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임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의 -되기를 위한 행보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미디어 교육을 통해 발현되는 노인 여성의 욕망하는 '소수성'

“우리는 지금 그거 다 못한다. 곧 죽어야 하는데 언제 그걸 배우나(연구 참여자 4).“ 대부분의 노인들은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무언가를 습득해야 한다면 한발 물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욕망은 청년 세대 못지않게 강렬하지만, 기존의 노인 이미지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제한하고 차단해 '노인'이라는 고유명사가 품고 있는 고정된 의미를 생산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다수자적이고 지배적인 논리를 탈피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주체성을 실천하는 '소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내 친구들 중에 이름은 없지만 영화감독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의 감독들이야. 그런데 내가 예전에 감독 친구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배우고 잡아 보려면 아마 한참 걸릴 거야. 필름도 비싸고... 그런데 이젠 달라. 이 디지털 카메라를 다르단 거지. 손가락만 까딱하면 수천 번 수만 번 바꾸고 다시 찍을 수 있어. 쉽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야.”

- <연구 참여자 1>

“내가 이걸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되는 일이 있어. 영정 사진을 찍어 주는 거야. 영정 사진이란 게 참 묘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찍으러 가질 수도 없고, 노인들 스스로 찍으러 가는 것

도 참 기분이 이상해. 그러다 보니 시기도 놓치고, 정작 부모가 죽었는데 사진이 없어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자식들을 보니 이런 봉사를 하자 싶었지.” - 〈연구 참여자 5〉

“카메라만 들고 다녀도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 그리고 내가 미래의 그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된 거 같아 그냥 기분 좋고 우쭐한 마음이 들어. 적어도 부정적 영향은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린 무엇보다 누구 눈치 같은 거 보지 않아. 우리가 찍고 싶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뭐, 우리가 만든 영화를 안틀어 줄 권리는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정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얼굴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의 희로애락마저 읽혀진다고 했다. 처음에는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분위기가 딱딱하고 엄숙하기까지 했지만,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열심히 살고 가는데 손님맛이가 우울하지 말자고 설득하면서 조금씩 표정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렇게 찍기 시작 한 영정 사진이 해마다 500명씩 현재는 4,000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는 비슷한 또래가 진심을 담아 설득해 마음이 변화를 이끌어 낸 결과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인들은 영정 사진이 죽음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오래도록 남은 얼굴을 위해 ‘분칠’은 물론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등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 문화재 촬영을 위한 출사를 나가 거의 하루 종일 촬영 작업을 통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었다.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변화의 동기를 할 수 있는 ‘욕망’에서 찾는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욕망’은 어떤 틀 속에 갇히지 않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기기의 사용법을 비롯해 그 안의 콘텐츠 이용과 동영상 제작은 노인들의 잠재된 욕망 즉, 그들의 에너지를 깨우고 있었다. 이렇게 깨워진 욕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도전으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소수자 문화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노인들 중에서도 여성 노인들은 그들의 ‘소수성’에 입각해 자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사회의 다수자적인 시선을 교정하고 소수성의 성격을 재창출함은 물론이고 재구성하기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에 우리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물론 기술 개발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 우리는 콘텐츠로 운영하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느라 10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매일 공부해. 시스템도 갖춰 있고. 평생교육만 해도 노인의 행복추구권 하나는 갖추는 거야. 평생교육을 하는 이곳에서 우린 비슷한 영감, 할머니들이 만나서 할 일이 있는 거지.” - 〈연구 참여자 6〉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 속에서의 다수성은 수적인 의미가 아닌, 지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성이 소수자라는 것은 남성보다 수적으로 적음이 아닌 남성적 지배 구조 내에서의 아웃사이더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소수성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생성이나 과정에 입각한 소수와 집합과 상태로서의 소수성의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성, 소수자 되기는 평범함을 거부한다. 특정한 이성과 기준에 입각한 것이 아닌 욕망에 입각해서 ‘다른’ ‘새로움’ 되기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 6〉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 노인들은 그들이 받은 미디어 교육을 단순 기기 다루기, 그것의 향상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영혼이 깃든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기 소셜벤처대회 포스터 보이시? 저 대회에 우리가 출전해. 한 번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6 개월 걸려. 난 그 동안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드물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공유하자는 거지. 솔직히 이런 거 안 해도 홍보 영상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젠 그런 거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지만 공유하고 발전시키자는 거지.” - 〈연구 참여자 6〉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즘들이 증식하는 질서의 존재론적 구도를 ‘고른 판(plan de consistance)’으로 재구성하는데(연효숙, 2006). 고른 판이란 고정된 위계와 질서에 의해 단일하게 전체화된 통일체가 아닌 고유한 차이들과 상호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판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받은 미디어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고른 판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콘텐츠 개발에 매진함은 물론이고 그것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생성으로,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틀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고른 판은 고정된 위계와 질서에 의해 전체화된 통일체를 거부하고, 고유한 차이들 속에서 흐름들이 횡단되는 가운데, 각 존재자들이 자신을 펼쳐 내는 내재성의 장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자신들이 학습으로 체화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을 단순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보다 큰 무대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노인들의 도전 사례가 드물다는 부분에 각각의 사명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맡은 바 역할마다 그들의 '혼'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른바 '혼'을 담아내는 작업은 각각의 고유한 차이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건물 들어오다 보면 아래층에 경로당 있어. 노인들이 하루 종일 화투치는 곳이지. 저녁에 일어나지도 못해. 하루 종일 앉아서 화투만 치니... 하루 종일 앉아서 노니까 늙지... 우스울지 모르지만, 우린 거기서 시간 보내는 노인들이 불쌍해..” -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포래 노인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그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매일 미디어 센터에 나와 영화 찍는다고 분주한 자신들을 보면서 ‘저 노인네 영화에 미쳤네’, ‘노망이지 젊은 애들도 힘들다고 난린데 무슨 영화는 영화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런 시선 자체가 의식되지 않을 만큼 이 일이 즐겁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다른 여성노인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또 자칫 우월감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는 여성 노인들 속에서 또 다른 약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이 교육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서 또 다른 계층을 생성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쩌면 경로당에서 화투치는 일상이 노인들의 전형적인 일상의 그림일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고정된 질서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변이와 생성의 역량 펼칠 수 있는 ‘영화 만들기’ 작업을 통해 내가 주체가 되어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자신만의 영역에 ‘나의 혼’이 투영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차이 그 차체와 되기의 실천적 주체가 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소수성’을 대변하는 ‘소수자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소수자 교육이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며, 틀뢰즈와 가타리가 지적하는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 척도 바깥에 놓인 이른바 ‘아웃사이더’의 존재가 갖는 감정과의

식의 흐름을 구성함으로써 '나 - 주제'의 의식적이고 개별화된 상태를 변형하는 게 핵심이다(Gregg Lambert 2006/2013). 이는 '- 되기'가 창조적이며, 그 자체로 소수적이고 더불어 하나의 '생성'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노인여성 - 되기'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 세계가 좋아”(연구 참여자 2). ‘되기(becoming)’는 두 개의 항의 쌍방향적인 변화를 통해 역동성과 창조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되기는 타자와의 만남이며 동시에 다른 세계와의 조우다. 현재의 내가 아닌 외부의 다른 무엇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언제나 물적인 층위가 아닌 분자적인 층위의 ‘되기’임에 주목하여 ‘되기’의 주체로서의 과정에 있는 여성 노인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노인여성 - 되기’의 흐름에 얼마나 풍부한 역동성과 창조성을 품고 있는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난 2005년 처음엔 산책하다가 간판을 보고 찾아왔다가, 오고 싶었는데 손주 키우고 2010년에 정말 뭘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왔어. 은빛둥지라는 말이 좋고 나랑 취지도 잘 맞고, 배우다 보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지금은 여기 홍보실도 담당하고 있어.”

- 〈연구 참여자 3〉

“여기 첨에 슬리퍼 신고 나왔어. 그게 11년 전이지. 영감님 돌아가시고 허전해서... 처음 수강 신청했을 때 내 번호가 14번이었어. 근데 저기 저 원장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야. 컴퓨터를, 첨엔 배우다 커서가 없어지고 하면 손들고 선생님 커서 없어졌어요, 하고 소리도 지르고 재밌었지.” -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와 〈연구 참여자 3〉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방문한 미디어 교육 센터였지만, 반복적으로 나가면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컸고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생각에 보람 있고 또래 노인들 사이에서 우쭐한 기분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번 빠진 강좌를 들으려면 한 팀이 돌아야 하는 불편함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직은 미디어 속 소통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 만난 또래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과 점점 기계와 함께 방에 있는 시간들도 늘어나면서 활동의 빈도가 줄어든 것 역시 변화라고 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교수자가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었고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해 보다 쉽

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생성/되기가 주체성의 새로운 계열과 새로운 형식에 속하는 행위의 포착이라면, 〈연구 참여자2〉는 더 이상 누구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아닌 ‘영화감독 000’로 불리는 현재가 나이도 있고, 아플 시간도 없을 만큼 행복함에 관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영화감독 000’가 열어 준 새로운 세계는 젊은 세대들과 경쟁하고 싶어도 쉽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도전의식으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로 인해 성취감까지 맛보게 함은 본능과 구분되는 욕망으로 인한 창조적 생성과 주체적이고 실천적 ‘노인여성- 되기’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여성- 되기’가 생성의 관문이자 시작이라고 한 측면에서 어떤 여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 그 자체로의 되기의 주체적 실천의 모습인 것이다.

“할머니들은 젊을 때 애들 키우고, 남편 섬기고 하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못해서 그런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여기 꾸준히 나오는 사람도 할머니들이 많아.” -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3〉과 〈연구 참여자 6〉은 몇 년간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제, 은빛둥지 안에서 홍보 담당 역할까지 총괄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의 누구의 할머니 역할과 은빛둥지 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 담당 할머니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한 사람의 여자이기 전에 어머니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결정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몰적 노인여성- 되기와 분자적 노인여성- 되기의 대립의 예로 들 수 있는 경우다. 여성주의가 보편적 남성주의, 보편적 여성주의에 이의를 제시하는 과정이라면, 이는 그 차이 자체와 반드시 관련을 맺게 된다. 들뢰즈 식의 여성주의는 탈젠더적 여성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여성- 남성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한,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의 아주 작은 일부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되기는 다른 모든 되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김비아, 2006).

들뢰즈와 가타리가 현재의 변형을 위해 창조한 모든 이상적 인물 형상들 중 ‘여성- 되기’ 그 안에서 ‘노인여성- 되기’가 행위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정체성을 해소한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노인여성- 되기는 어느 정도 사회 구조적 통념에서 보다 여유 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분자적 움직임이 가능함에 잠정적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 진 가정 내의 역할에서 벗어나 거울에 비춰진 그대로의 자신을 찾는 여정의 일환으로 디지

털 미디어를 매개로 생산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빛둥지'의 일원으로 시작해서 '은빛미디어'라는 사회적 기업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 창출로 미디어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는 긍정적 순환은 삶의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난 9시에 출근해서 컴맹 노인들 가르쳐. 그래서 강의 있는 날은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오고. 자식들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아. 이미 우린 과정을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경험은 많으니까 더 잘하지.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좋아. 눈치 보지 않고.” -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2〉와 〈연구 참여자 4〉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별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독립적일 수 있음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독립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하여 '당당함'과 '의욕'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로 무장되어 거침이 없어졌음을 유쾌한 변화로 들 수 있었다. 초창기 미디어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출발해서 교수자가 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경제적 독립은 여성 노인들의 삶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학생이었던 경험을 되살려서 노인들에게 이른바 '눈높이 교육'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눈높이 교육' 덕에 비슷한 세대의 다른 노인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수강생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 힘은 들지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노인 여성들은 미디어 다루기가 익숙해질수록 각자의 관심 분야, 이를테면 요리·화초 가꾸기·여행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서툴지만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관해 솔직하고 담대하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무장된 콘텐츠로 어필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라서 지루할 수도, 획기적인 신선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여 주기 위함이 주가 아닌 성실함을 무기로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소수자 - 되기, 노인여성 - 되기의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욕망이 전제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의 실천적 모습은 황혼의 시간을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닌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시간으로 실천하고 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 중에서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건 영상이야. 특히나 이걸 배우는 게 너

무 재밌어. 학습에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특히 노인들은 안해. 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노인에게 배움은 명분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직접적인 흥미 유발과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쓰여야 하는 거지.” - 〈연구 참여자 2〉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든 걸 하냐고? 재밌잖아!” 〈연구 참여자2〉는 인터뷰 내내 ‘재미 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이 신노인상을 만들어가는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인간에게 ‘유희’의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한정적임을 언제나 인지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에게 배움은 더 이상 명분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재미있는 교육’이 명분이 된 것이다. 매일 나와서 받는 교육이 ‘재미’가 없었다면 그들의 삶에 새롭게 주어진 ‘선물’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노인 미디어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이라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에, 재미라는 스스로 ‘더불어 같이’, ‘함께 소통하기’를 버무린 그들만의 콘텐츠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재미있고 즐겁게 배운 내용들을 무기로 더 재미있는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여성 노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그들 내면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분출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의 성취감을 경험하고, 반성을 통한 발전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디~액션! 컷’에서 ‘내가 살아 있구나’를 실감한다는 이들을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의 중심축이 단순 기술이 아닌 세상과의 소통의 단절과 소외로 인한 약자로서의 소수자가 아닌 ‘소수자 되기’ 나아가 ‘노인여성 - 되기’ 실천적 움직임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실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노인들은 사회 자본의 맥락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원로들 그 안에서 여성 원로들만의 특성을 살려 젊은 세대를 향한 따뜻한 격려가 담긴 ‘뭇글 달기’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접한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계층 간의 차이를 좁히고 그들이 더 이상 소외된 약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이 그 실효성과 성과의 측면에서 비슷한 잣대가 주어지겠지만, 미디어 교육, 그 중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은 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남은 생에서 죽어 있는 교육이 되느냐 혹은 살아 있는 교육이 되느냐의 그 경계가 누가 주체가 되어 마음껏 역량을 펼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살아서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에 관한 인식과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노인 여성의 '소수성'의 발현, 마지막으로 노인 미디어 교육이 노인여성 - 되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했다.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과 사유 가운데 '되기'를 중심으로 '소수자 - 되기', '노인여성 - 되기'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위해 안산시에 위치한 영상 미디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노인들은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초고령 사회에 대한 노인의 삶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키워드는 '디지털', '디지털 미디어'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를 '디지털 에이징'으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즉, 미디어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노인들은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함을 시작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다. 고철에 불과한 컴퓨터를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을 저장하고 변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보호받고 열외로 밀려나는 집단이 아닌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고 표현함을 욕망을 표출하는 것, '되기'로서의 움직임으로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발현되는 노인 여성의 '소수성'에 관한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한계성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모습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신들이 미디어 동아리를 통해 교육받은 다양한 콘텐츠를 그들 나름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영정 사진 찍어 주기'를 통해 노인들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고, 매주 출사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단순 기념품이 아닌 영상을 담아 홍보하는 사회적 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게 임하고 있었다.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성'에 입각해 고정된 위계와 질서를 거부하는 고른 판에서 욕망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표출함으로써 실천적 소수자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미디어 교육이 '노인여성 - 되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의 사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우선, '- 되기(become)'에서 알 수 있듯이 완성된 무엇이라고 보기보다 무엇으로 향하는 과

정의 측면으로 설명된다. 즉, 타자와의 만남이며 동시에 다른 세계와의 조우다. 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는 노인의 새로운 '무엇'에 관한 준비를 도모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디지털이 선사한 온라인에서 누릴 수 있는 '누구나'가 통용되는 평등이라는 최대의 이점을 노인과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사회에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이 예측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문화를 통해 고령화로 생겨난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답을 얻는다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이른바 신노인 'X세대' 노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름',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남·녀·노·소 세대에 맞춰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안에서 여성노인 학습자들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중심 사유라 할 수 있는 소수자 되기를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여성노인에게 미디어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간접적인 통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디어 교육은 노인 학습자 스스로가 획일화된 교육 환경에서 분자적으로 움직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와 이변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계속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문이 보완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강조하는 '재미'의 측면이 그들만의 재미가 아닌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바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노인 미디어 교육이 '다름'을 실천하고 '차이'를 생성해냄으로써 노인들 고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소수자 교육 될 수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지금'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참고 문헌

- 강진숙 (2009). 노인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겨울, 38호, 306-325.
- 강진숙·배민영 (2010). '소수자-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 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16권 1호, 255-280.
- 강진숙 (2012). 노인여성의 미디어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연구. <방송문화연구>, 24권 1호, 111-138.
- 김명주 (2009). '육망' 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철학논총>, 57집 3권.
- 김여진·박선영 (2013). 은퇴 노인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권 3호, 309-332.
- 김영주·정재민 (2006). <노인과 미디어>. 한국언론재단.
- 김정엽 (2010). 노인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권 2호, 29-62.
- 김정진·이성엽 (2013). 노인 학습동아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한 사례연구: 은빛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성인교육학회>, 16권 3호, 35-59.
- 김비아 (2007). <들뢰즈-가타리의 '되기'의 정치학이 지닌 교육적 함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라영수 (2013). <꿈을 짚는 노인들: 은빛등지의 꿈>. https://www.mulhyanggi.com/2010/bbs/board.php?bo_table=s3_1_1&wr_id=50
- 박명선 (2002). 노인여성의 일과 빈곤. <한국 사회학>, 36집 2호, 175-204.
- 서정훈 (2007). 노인 미디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수용자 중심에서 시작하는 교육으로. <ACT>, 45호.
- 박민욱 (2014). 영상 미디어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레디~액션!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http://blog.daum.net/sorrybaby7/74>
- 박영란 (2014). 고령화 사회의 젠더이슈. <젠더리뷰>, 봄호.
- 신지영 (2007). 들뢰즈의 차이 개념에 관련한 여성주의 재정립 가능성. <한국여성철학>, 7권.
- 윤수중 (2007). 분자혁명에서 생태철학으로-펠릭스 카타리의 사상 추이. <진보평론>, 31호, 182-206.
- 윤수중 (2008). 소수자와 교육. <진보평론>, 227-242.
- 이경화 (2013). Deleuze와 Guattari의 '여성 - 되기'의 관점에서 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아 여성연구>, 52권 1호.
- 이은석 (2012).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Becoming)'이론으로 본 Station ID의 TV채널 아이덴티티.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권 3호, 247-256.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 조용하 (2009). 노인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인과적 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12권 1호, 1-28.
- 정성기 (2012). 사회자본의 정책적 의미. <사회과학연구>, 21호, 27-4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고령화 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한동희 (2006). 웰에이징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실버. <노인생활과학연구소>.

한동희 (2014). 여성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권 3호, 479-500.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파주 : 한울.

홍명신 (2007). <노인과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Colebrook, C. (2002). *Understanding Deleuze*. 한정현(역) (2007). <들뢰즈 이해하기>. 서울: 그린비.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역) (2001).

<천 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Guattari (1977). *La révolution moléculaire, Recherches*. 윤수중(역) (1998). <분자혁명>. 서울: 푸른숲.

Lambert, Gregg (2006). *Who's Afraid of Deleuze and Guattari?* 최진석(역) (2013). <누가 들뢰즈와 가타리를 두려워하는가?>. 서울: 자음과 모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2014. 3. 4.) 디지털 에이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059
&cid=43667&categoryId=43667](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059&cid=43667&categoryId=43667)

라영수 (2012. 11. 26). 안산의 한 노인,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공모 대상 수상.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6415&CMPT_CD=SEARCH

라영수 (2013. 10. 20). '디지털 에이징'을 대표하는 안산 할머니.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693&CMPT_CD=SEARCH

투고일자: 2014. 11. 30. 게재확정일자: 2015. 03. 23. 최종수정일자: 2015. 03. 25.

Case Study of 'Becoming Women' through the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Club for Seniors <The silver nest>

Yujeong Chang

Doctoral Candidate, Dept. of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Jinsuk Kang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French poststructuralists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pointed out that the minority age already has come in the modern society through discussing minority topic. Furthermore, they supported 'Becoming' as new methodology that minorities escape from suppressed reality. 'Becoming' is the practical concept for how one identity could split into different lives and subjects, thus it could be explained as an exemplary that autonomous change and actively entering into different l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seeks the practical way for elder women can independently participate in media education which is based on concretely 'becoming woman'. For this,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concept and thought of Deleuze and Guattari. The reason why this article premises this theory is for changing 'desire' of elder women's approach to 'becoming women' through new interpretation about minority and minorities which were defined by quantitative criteria. Consequently, this article would suggest the direction of senior media education for seniors for the positive and specific effect.

KEYWORDS media education, minority, becoming, elderly women